

통권 제 243호

강남. 라 00943

2568
2024

1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20
구경의 법



마음의 등불
고정관념을
깎아내는 것



살다보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충지중

자아의 발견

자아를 버리지 말고 자아를 바로 관하라.

바르게 아를 포착하고 무아를 바르게 관함은 동시에 자아의 발견이다.



불교이야기 _10
부처님의 성도1
_ 화령 정사



마지막 공부 _48
갈림길
_ 유소림



지혜의 뜨락 _54
뉴타입으로
'새로고침'
_ 방귀희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 구경의 법 - 김천
10 불교이야기	부처님의 성도1 - 화령 정사
14 마음챙김 메커니즘	욕망-다섯 가지 괴로움의 근원 - 임진수
18 경전에서 찾은 지혜	왜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야 할까? - 불교총치종 법장원
22 지장 스님의 향유	상선약수 上善若水 - 지장 스님
27 문화재 해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엄구 - 위드다르마 편집실
32 우리절노래꽃	불법 인연 높습니다 - 묘원화 전수
34 산책	토닥토닥 - 김대곤
35 살다보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 이육경
42 마음의 등불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 - 윤재환
45 씨앗 한 알	괴로움 속으로 뛰어 들 때 답은 있다 - 법상 스님
48 마지막 공부	갈림길 - 유소림
51 동행	작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삶 - 탁상달
54 지혜의 뜨락	뉴타입으로 '새로고침' - 방귀희
58 십선성취	나의 중국불교 체험기 - 남혜 정사
62 속담으로 보는 불교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 김성철
66 나만의 빛, 모두의 빛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70 금쪽상담소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73 서원당 안의 불교	'람'자 관輓 - 혜광 정사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78 법회일정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도를 엄원합니다.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회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연달아 맡아 성공시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같이 출근하는 남자에게
자다 말고 튀어나온 막내딸이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아무리 늦게 오셔도 나를 깨워 주세요.
아빠한테 꼭 할 말이 있거든요.”

그 순간 남자는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바빠서 막내딸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현대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점점 더 바빠져서 삶의 형태는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 성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공을 위해 달려 나가다 보면
자신의 꿈과 가치, 그리고 가정의 행복,
삶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피곤하고 지쳐있습니다.
회사에서 고된 업무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퇴근할 때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자식이
당신이 힘들고 지친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날은 곧 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도 곧 올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최고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 편지 2023년 11월 20일 자>



불공 잘해라 구경의 법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12화 - 창종Ⅱ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분종의 조짐마저 보였다. 결단을 내려야 했다. 원정 대성사는 20여 년간 회당 대종사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온 종단의 앞날을 먼저 생각했다. 분열을 원치 않았던 대성사는 1971년 12월 총인 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회당 대종사의 영전에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대성사를 따르던 이들의 동요와 분란을 막기 위해 아예 종적을 감추고 칩거에 들어갔다. 대성사의 대처는 오직 묵연(默然). 어떤 경우에도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심중을 지킬 뿐이었다. 그 과정을 많은 이들이 보았고 여러 스승이 목

격했다. 후일 대성사를 따라 나선 이들은 이때 묵빈대처(默賓對處)하는 모습에서 진실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거나 대항하지 않고 오직 불경을 연구하고 밀교행자로서 진언과 수행에만 몰입했다.

바른 밀교수행법을 정립하여 진각종을 정통 밀교종단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려던 대성사의 뜻은 무산되었다. 정법 밀교에 대한 무지와 종단을 혼란에 빠트릴지 모른다는 오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생을 걸고 실천했던 중생구제의 대원력을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었다. 오마니반메쁨으로 불철주야 기도해 생사가 위태로웠던 아들을 구했고, 법신 부처님의 신묘하고 불가사의한 가지력(加持力)을 생생하게 확인한 대성사는 진언염송의 가피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체득하고, 수많은 밀교 경전 속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나갔다.

대성사는 곧 100일 불공에 들어갔다. 시비를 가리지 않고 믿음을 법계에 맡기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거소에 은거하며 심중의 응답을 기다렸다. 기도와 수행이 깊어졌다. 주변이 고요해졌고 시비는 사그라들었다. 오직 정진만이 있을 뿐이었다. 세상에 본래 존재하는 법신 부처님을 마음 안에 온

전히 담기 위해 염송했다.

정진이 이어졌다. 두 손으로 맺은 결인은 우주 법계의 법신 부처님과 자비의 화현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간절한 진언행자를 하나로 이어주었다. 지극한 진언염송이 거듭되었다. 우주의 소리와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망이 소용돌이쳤다. 진언염송의 뜨거운 염원과 정통·정법의 밀교종단 창종을 위한 서원이 대성사의 몸과 마음을 채웠다. 그리고 백 일째 되는 4월 7일 밤, 원정 대성사는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금관을 전해 받고, 다음날 밤 다시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한 줄기 서광과 함께 “대승장엄보왕경과 준제관음법으로 교화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한 점 티 없이 바르고 깨끗하고 완전무결한 밀교법으로 중생을 고난에서 구하라는 불보살님의 부촉이었다. 대성사는 이를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 심지를 세웠다. 밀교의 법은 몽수 전법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것이다.

1972년 6월 28일 대성사는 마지막 남은 명예직인 기로원장직을 내려놓고 물러섰다. 신심 있는 이는 오직 사필귀정과 파사현정을 믿을 뿐 세상의 오해와 시비에 휩쓸리지 않아 용기 있게 자기 길을 걷는다. 대성사는 그렇게 자기 삶의 중요한 시간을 보낸 진각종에서 물러서 더 큰 빛의 길로 향하였다.



당장 진각종에서 거처를 옮겨야 했는데, 대성사로서는 갈 곳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인척의 집에 임시 거처를 구하였다. 당시 형수와 가족들이 정릉에서 목욕탕을 하였는데, 1층은 목욕탕이고 3층에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비어 있던 2층에 임시로 거처를 정하였다. 대략 3개월 정도를 정릉 형수의 집에

의탁해 있었다. 그야말로 평생 사사로이 가지고 쌓아둔 것이 없는 구도자의 삶이었다.

그 후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역 앞 서울선교부 응신서원당 應身誓願堂, 지금의 정심사에서 대성사는 수행을 하며 칩거하게 된다. 이곳에 머물면서 법계의 변화를 살폈다. 1972년 8월 27일부터 이곳에 머물며 밀교의 후일을 기약하였으니 정심사는 총지종의 요람이 된 곳이다.

대성사는 세상과 절연한 채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는데, 상봉동에 머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스승과 교도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다. 이때 대성사를 찾아온 이들이 룡정, 환당, 청암, 현수, 불멸심, 법장화, 대자행, 복지화 등 진각종의 스승과 교도이다. 오래도록 대성사를 보아온 이들은 한눈에 밀교의 비법을 성취한 거룩하고 고요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대성사의 편을 들기도 하고 종단의 처사를 원망하기도 하였으나 대성사는 고요히 웃을 뿐 일체 원한을 삼지 말라고 가르쳤다.

스승들과 교도들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대성사는 고요히 때가 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시절 인연이 닿아야 새로

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심종의 뜻을 다지며 어떤 법을 펼쳐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대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명확한 신앙의 지표와 종교의 체계였다. 상봉동 대성사의 거처가 알려지자 고통을 겪어온 이들이 밀려왔다. 목마른 이가 샘을 찾아오듯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들고 와 대성사에게 길을 물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밀교수행법 안에서 그 고난을 여윌 방법을 가르치고 불공법을 전하였다.

진언이 필요한 이에게는 진언수행을 가르치고 회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내어 욕심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다.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육자진언과 함께 준제진언을 염하도록 했다.

대성사는 밀교수행법을 전수하는 틈틈이 교리체계를 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완전한 밀교의 교리와 의식을 갖추지 못하면 정진해도 공덕이 없고 도리어 마장이 있음을 우려하여 삼밀가지 三密加持의 올바른 수행법을 확립하기 위한 경전 탐구와 밀교의계의 정립에 몰두했다. 여러 경전을 불철주야 탐독하여 발견한 밀교의계의 역사성과 정당성, 그리고 정진 끝에 몸소 성취한 엄격한 밀교수행법을 체계화했다.

부처님의 성도1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의 고행을 버리시고 라자가하(왕사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우루벨라 마을의 네란자라 강 근처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다시 일어서지 않으리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삶의 근본적인 고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사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7일째 되던 날 새벽 먼동이 틀 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경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숙명통을 얻어 과거의 일을 꿰뚫어 보시고, 한밤중에 천안통을 얻어 미래의 일을 꿰뚫어 보시고, 새벽녘에 누진통을 얻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때의 감동을 경전에서는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늘에는 꽃비가 내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것은 엄숙하고도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고, 살아 있는 인



간으로서 생사를 초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이 순간에 번뇌와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을 얻고 바로 보리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7일 동안 그 나무 밑에서 당신의 깨달음을 음미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울장이나 자설경 등에 보면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의 석가모니부처님에 대해 대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우루벨라 마을의 네란자라 강변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신 세존께서는 결과가좌한 채 7일 동안 한 자세로 삼매에 잠겨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셨다.

깨달음을 얻으신 뒤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앉아서서 7일 동안이나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 즐거움은 아마 필설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구하던 진리가 또렷이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고뇌를 초월하여 더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즐기는 그런 마음은 말하자면 지혜의 즐거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범부들도 사소한 것이라도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았을 때나 자기 혼자만의 방법을 터득했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 있던 것을 지혜로써 말끔히 해결했을 때 가지게 되는

기쁨을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기쁨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주의 대 진리를 깨치시고 생사를 초월하는 원리를 터득하신 그 즐거움이 어찌 범부들의 그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처님께서서는 우리 범부들처럼 기뻐서 날뛰지 않고 조용히 그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음미하고 계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말로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직관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태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말로 표현하자면 끝이 없지만 마음에 와 닿는 한 생각으로 모든 사실이 파악되고 그것의 전모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느끼는 감흥과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저 느끼고 알 뿐이지 그것을 도저히 말로는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부처님에게도 모든 진리가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와 논리를 초월한 글자 그대로 모든 진리가 그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욕망-다섯 가지 괴로움의 근원 상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사람은 욕망 없이 살 수 없다. 욕망을 통해 생존하고 번식하며 인간이라는 종을 이어나간다. 욕망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욕망은 사람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도 가지고 있다. 동물과 식물도 욕망을 가지고 있다. 태어난 이상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욕망을 가져야 한다. 일단 먹어야 살 수 있고, 번식을 해야 종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잠을 자야 휴식을 취하고 먹고 마시고 번식할 준비가 된다. 식물의 경우 욕망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 이들 역시 동물과 다를 바 없다.

불교에서는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욕망이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괴로움의 원인이라니... 그렇다면 인간에게 괴로움은 필수적이란 말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의문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사람에게서 있어서 욕망은 무엇일까? 먼저 사람에게에는 다섯 가지 욕망이 있다. 오욕^{五慾}이라고 하며 이 다섯 가지 욕망



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오욕락^{五慾樂}이라고 한다. 다섯 가지 욕망은 식욕^{食慾}, 성욕^{性慾}, 수면욕^{睡眠慾}, 이익욕^{利益慾}, 명예욕^{名譽慾} 등이다. 이 중 앞의 세 가지는 생리적인 욕구이자 욕망이며 뒤의 두 가지는 사회적인 욕망이다.

생리적 욕망인 세 가지 욕망에 기인한 마음을 불교에서는 삼

독심^{三毒心}이라고 하며, 탐^貪, 진^瞋, 치^癡라고 하여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한다. 탐심은 탐욕이고, 진심은 분노이며, 치심은 어리석음^{無知}이다. 탐심은 식욕과 맞닿아 있고, 진심은 성욕과 맞닿아 있으면 치심은 수면욕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살펴보면 대체로 식탐이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 강하고, 섹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노가 강하며,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경우가 많다.

식욕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욕구이다. 세상의 어떤 생물도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식물의 경우 땅, 물, 햇빛의 기본 요소로 에너지를 갖게 되지만 동물의 경우는 식물이나 다른 동물의 살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고 생존해 나간다.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의 경우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몸에 영양분을 축적하거나 식량을 비축하기도 한다. 육식동물의 경우는 사냥에 성공하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냥이 성공하면 최대한 많은 양을 먹는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수렵이나 채집에 의지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비축한 식량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바로 탐심이다. 탐욕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이

런 과식에 의한 행위는 현대인들에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병으로 다가온다. 자신의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 했던 행위가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기적인 행동은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것 같지만 언젠가 자신을 해치게 된다.

성욕은 인간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욕구이다. 자신의 존재성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자식을 만드는 행위이다. 성행위는 자손을 낳기 위한 행위이며 성욕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물의 경우 발정기가 존재한다. 발정기는 지역의 기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새끼를 포육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그렇다. 그 기간 동안 새끼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정기가 정해진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로 인간에게는 특별한 발정기가 사라졌고, 더 나아가 성행위를 단순히 쾌락을 위한 행위로 사용한다. 이런 쾌락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분노하게 된다. 이것이 진심^{瞋心}이다. 분노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만든다. 감정에 휘둘려 이상적인 사고를 방해한다. 분노에 의한 마음의 진폭은 한 번 일어난 크기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공허함을 이끌고 이 빈 공간을 또 다른 쾌락으로 이끈다. 바로 술을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욕과 술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다음호에 계속〉

왜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야 할까?

불교총지종 법장원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주리판타카를 보셨다.

“왜 거기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주리판타카는 남들이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이었지만, 부처님께서 그의 심성이 매우 착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아시고 다가가 물으셨다.

“부처님,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계송을 하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부처님의 제자가 될 가망이 없다고 사형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쓸고 닦고를 일러주면, 쓸고 하면 닦고를 잊어버리고, 닦고를 하면 쓸고를 잊어버릴 정도로 바보였다.

“주리판타카야, 너는 오늘부터 아무 것도 외우지 않아도 좋다. 그 대신 이 빗자루로 매일매일 마당을 쓸며 ‘왜 빗자루로 마당



인도 스라바스티 기원정사터

을 쓸어야 할까?’ 하고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주리판타카는 매일매일 열심히 마당을 쓸면서 생각했다. 그러나 ‘왜 빗자루로 마당을’까지 외우다 보면 ‘쓸어야 할까?’를 잊어버리고, ‘쓸어야 할까?’를 외우면 ‘왜 빗자루로 마당을’을 잊어버렸다.

그래도 주리판타카는 실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꾸준히 마

당을 쓸면서 생각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주리판타카는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이유를 알았다. 그것은 마당의 먼지를 쓸어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부처님께서 빗자루를 주시면서 마당을 쓸라고 하신 뜻을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주리판타카의 생각은 점점 깊어갔다. 그날도 여전히 마당을 쓸면서 깊은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부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 주리판타카는 너무 기뻐서 황급히 부처님께 달려가 말씀드렸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제게 일러주신 ‘왜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야 할까?’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리판타카의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면서 물으셨다.

“그래 판타카야, 너는 그 뜻을 어떻게 알았느냐?”

“부처님, 부처님께서 마당의 먼지를 쓸라고 하신 것은 제 마음속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먼지를 지혜의 비로 쓸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의 모든 번뇌 망상의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주리판타카야, 장하고 장하다. 너는 이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구나. 진리를 깨달았구나.”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그 우둔한 주리판타카가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경을 읽어도 그 참된 뜻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나의 법구라도 그 뜻을 참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주리판타카를 보아라.”

이렇게 해서 주리판타카는 기원정사 안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주리판타카는 부처님의 많은 제자 중에서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성자로 손꼽히게 되었다. 주리판타카 같은 바보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여 빛나는 지혜를 얻고 진리를 깨달아 성자가 되었다.

공평한 사회일수록 사소한 불평등에 더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평해진 만큼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강도가 더 예민해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작은 손해, 작은 차별에 기분 나빠하면서도 겉으로는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 애씁니다.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 쇼핑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을 벌고 경쟁에서 이기려 합니다. 다르게 보임으로써 만족을 느끼고, 반면에 다르게 보여서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다르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브랜드의 옷을 거의 단체로 입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자신이 아닌 외부의 대상으로 향하게 되면 그 순간 다름, 차이, 차별이 인식됩니다. 다름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해석 혹은 감정입니다. 만약 혼자 산다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다름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겠지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모든 순간 관계와 조건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관계 속에서 다름,

차이가 발생하고 다름은 다시 욕망, 경쟁을 유발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크게 기분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언가 부족함, 손해를 느끼면 기분 나빠합니다. 보통 자기 정체성이나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려는 속성을 보입니다. 어떤 현실은 바꾸지 못해도 그것을 보는 관점이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인도의 악바르 왕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벽에 선 하나를 그어 놓고 그 선을 건들지 말고 짧게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궁리를 하고 있을 때 한 신하가 나와 그 선보다 더 긴 선을 그 옆에 나란히 그었습니다. 처음 그은 선이 혼자만 있었을 때는 짧다거나 길다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보다 더 긴 선이 옆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짧은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같음이나 다름, 차이 등도 어찌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심리적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름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그리고 반대로 같음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기회의 평등, 존재 가치의 평등



을 말할 때입니다. 알고 보면 같음과 다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일으키는 반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 반응이 같음과 다름을 선과 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외부 세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의식의 중심을 두려 합니다. 그곳에서 같음과 다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서도 무언가 특별한 다른 마음 상태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 또한 다르고 싶어하는 욕망의 차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볼 때 다름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다름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작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길을 갈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물을 보면서 같음과 다름의 이치를 배우려 합니다.《노자_{老子}》에 ‘상선약수_{上善若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의 속성을 잘 관찰해보면 정말로 같음과 다름의 문제를 초월해 있습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차별하거나 다투지 않고, 다름 속에서 같음을 보여줍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엄구

위드다르마 편집실

내면의 정체성과 현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노자는 도에 가깝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르게’ 보면 물과 같습니다. ‘이익’ ‘행복’ ‘사랑’ 등을 위해 참으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지만, 본질 즉 마음의 실체를 이해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양들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또한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보고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이라는 것 자체에 무심해 질 수 있다면, 그때 같음과 다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과 같은 무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마음에도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좀 이상적인 말이지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자신에게 어떤 열등감이 생긴다면 이것은 건전한 열등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열등감, 이런 다름의 인식도 때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1965년 11월, 기우뚱 기울어져 무너질 위험에 처한 오층석탑의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석탑을 완전히 해체하여 수리하는 과정에서 탑 안에 모셔진 사리장엄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살펴볼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입니다.

‘사리’를 담는 용기, 사리장엄구

‘사리舍利’는 인도에서 몸이나 뼈, 유골 등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사리라(sarīra)’라는 말이 중국으로 전해질 때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옮겨 적으면서 생긴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석가모니의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점차 개념이 넓어져 고승의 유골이나 석가모니의 말씀까지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를 처음 세운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뒤 그의 시신을 화장하고 나온 사리를 안치하려고 만든 건축물이 바로 ‘탑’의 시작입니다. 또한 성스러운 사리를 탑 안에 안치하기 위해 아

름답게 장식해서 만든 용기가 바로 '사리장엄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리를 직접 담는 사리기뿐 아니라 사리를 공양하는 의식과 관련된 물건, 그리고 사리에 바치는 각종 공양품 등 많은 것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왕궁에서 사원으로, 익산 왕궁리 유적 이야기

왕궁리 오층석탑이 있는 익산은 백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백제의 역사는 수도 이전에 따라 한성도읍기(현재의 서울, 기원전 18~475), 웅진도읍기(현재의 공주, 475~538), 사비도읍기(현재의 부여, 538~660)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사비기 인무왕(재위 600~641) 때, 익산에는 당시 수도였던 부여에 버금가는 중요한 국가 시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왕궁리 유적, 제석사지, 미륵사지, 쌍릉, 익산 토성(오금산성)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무왕대에 부여에서 익산으로 도읍을 옮겼다거나, 이곳을 별도의 도읍^{別都}으로 삼았다거나, 도읍을 옮기고자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는 등 여러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왕궁리 유적은 7세기 전반 백제 왕궁이 운영된 곳으로, 대형 전각을 포함한 33개 건물과 물건을 만드는 공방, 수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중 일부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선유이>제공

세식 화장실, 정원과 후원 시설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유적 동쪽에는 무왕이 조성했다는 제석사지가, 서북쪽에는 백제 최대 규모의 사원인 미륵사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왕궁이 있던 이곳은 백제 말부터 통일신라 사이 어느 시점에 불교 사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왕궁 시설이 있던 자리에 금당과 강당, 탑과 같은 사원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계속되는 논의,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이제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왕궁리 오층석탑 1층 지붕돌에 뚫린 두 개의 사리 구멍과 탑을 받치는 기단 안쪽 심초석에 뚫린 세 개의 사리 구멍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리장엄구가 만들어진 연대에 대해서는 발견된 지 5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기단에서 나온 금동여래입상이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양식을 띠는 점을 근거로 석탑과 사리장엄구 모두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이나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같은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구와 비교함으로써 8세기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1층 지붕돌에서 나온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의 구성이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 기록된 639년 제석사가 불타올 때 수습된 제석사지 목탑 사리장엄구에 대한 설명과 비슷하다는 점이나, 금제 사리함(안쪽 상자)의 문양이 백제 금속공예품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리장엄구가 백제 무왕대에 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미륵사지 석탑 수리 공사 중 탑에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주체(무왕의 왕후)와 연대(639년)를 알려주는 「사리봉영기」가 발견되면서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역시 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이후 미륵사지 석탑 사리기와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기의 비교를 통해 두 사리기의 문양과 제작 기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도 백제 말에 제작

된 것이라는 견해가 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백제의 전통이 강하게 남은 후대의 것이라는 견해도 여전히 제기됩니다.

아직도 언제, 누구에 의해 왕궁리의 왕궁이 사원으로 바뀌었는지, 언제 왕궁리 오층석탑과 사리장엄구가 만들어졌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남겨진 기록과 유물, 그리고 유적이 주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궁리 유적 발굴이 진행되고 미륵사지 석탑에서 새로운 사리장엄구가 확인되면서 유적과 유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있을 새로운 발견들을 통해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불법 인연 높습니다〉

정부기 작곡, 지원 스님 작사

묘원화 전수

벽룡사

불법 인연 높습니다

정부기 작곡
지원 스님 작사

♩ = 60

1. 꽃 깃 한 번 스쳐 가 도 오 백 생 의 인 연 인
2. 과 또 성 취 가 끝 없 이 너 울 지

5. 데 이 생 에 불 법 인 연 하 3 보 다 높 습 니
는 영 원 한 사 랑 속 에 이 천 안 주 하 리 이

9. 다 일 천 여 꽃 송 이 가 다 투 어 피 어 나
다 정 정 한 의 지 처 에 귀 의 하 신 법 우 시

13. 듯 삼 십 이 상 갖 춘 상 호 거 록 하 신 부 처 님
여 앞 은 반 고 이 씻 어 우 러 러 보 사 이

17. 전 오 신 길 꽃 부 리 고 향 들 사 퀘 맞 습 니
다 한 떨 기 앞 은 연 꽃 피 어 나 고 있 습 니

21. 1. 다 행 복 다 2. 다

Copyright © 묘원화 2023. 10. 10.

갑진년을 맞이하여 봄을 관장하는 청룡의 기상을 드높이는 노래를 소개한다.

〈불법 인연 높습니다〉는 지원 스님이 작사하고, 정부기 중앙대 음대 교수가 작곡했다.

정부기님은 한국 전통음계와 리듬 등을 서양음악이론에 과감히 접목시킨 작곡가로서 한국현대음악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박자를 사용하지 않고, 템포의 변화가 빠르고 역동적이며, 불규칙적인 리듬과 5음 음계, 복합 화성, 복합 박자를 사용해서 서양음악 이론에 한국적 정서를 담아 정부기 특유의 독특한 음악적 어법을 나타낸다.

2005년에는 정각 스님의 ‘부처님 생애’를 대본으로 불교창작오페라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불교 바라오페라단 창단 기념 공연으로 올렸다.

〈불법 인연 높습니다〉는 이러한 정부기 작곡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노래이다. 셋잇단음표를 사용해서 국악적 느낌을 주며, 연주자가 음을 충분히 늘이고 당겨 활용해서 노래를 더 맛있게 부르도록 하고 있다.

노랫말을 되새기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환희심이 일어난다. 지금 이순간 자리한 나의 모습, 인연들에 감사하는 숙연함이 차오른다. 그중에서 제일은 불법 인연이다.

어깨위
작은등
그곳에만필요한게
아니지
때때로 바빠져
두리번대는
가슴에게도필요한것
토닥토닥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지난 주말에 엄마의 미수연을 치렀어. 우리 5남매와 그 짝꿍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를 친 자식에 자식들까지, 27명이나 되는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서 1박 2일로 북적북적... 엄마의 백수를 기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단다. 건강하신 엄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어찌나 감사한 지, 깔깔거리고 웃다가 훌쩍거리며 울다가...(후략).”

뭉클한 사연과 함께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속에서 도톰한 분홍색 스웨터에 반짝이는 왕관까지 쓴 친구의 어머니가 자손들에게 둘러싸여 활짝 웃고 계신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아니어도 가족 모두가 하나같이 높이 치켜든 손가락 하트가 무언의 사랑을 전하는 듯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친구의 어머니도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하며 다섯 남매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 그래서인지 자손들의 환한 미소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은 더없이 곱고 당당하다. 지금도 설빔이면 수백 개의 만두를 빚고 추석이면 송편에 식혜까지 만들어 보내신다고, 철 따라 생선이며 나물 손질하고 된장 고추장까지 담가 보내신다고, 그래서 친구는 빈 구석 없이 바리

바리 꺾꺾 눌러 담은 택배 상자를 열 때마다 눈물바람을 한다 던가.

건강한 부모님이 계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젊은 날 부모님의 고생을 알고, 나날이 노쇠해지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애달파하는 자식이 있다는 건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같은 고향, 비슷한 연배였으면서도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부모님 생각에 새삼스레 마음이 아려온다.

어느 연세가 되면 부모님은 모두 동의어가 되는 것 같다. 누군가의 부모님이 아니라 그저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그런. 머리에 서리가 내려서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수많은 생각 중에는 회한이 대부분이다. 당연하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뒤늦게라도 알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처럼 자식의 걸음은 늘 한두 박자 늦기 마련이다. 조심스럽게 전문^{전문}을 옮겨 본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꼬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올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손톱이 닳도록 죽어라 일하는 어머니도, 배꼽아가며 찬물에 맨손으로 빨래하는 어머니도, 속 썩이는 남편과 자식 때문에 눈물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는 어머니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어머니로 살아야 하는 여자의 인생은 희생과 인내로 점철된 것이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되어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로 이어지는 동화를 아시는지. 많은 분들이 아~ 그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이 이야기는 1964년에 출판돼 5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쉐일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대표 명작이다. 쌍방통행이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소년에게로 향하는 나무의 사랑은 짝사랑에 가깝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나무가 사랑한 소년..., 어린 시절 그 소년은 나뭇잎을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의 왕 노릇을 하며 놀았고, 나무는 사랑하는 소년과 매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

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한 소년은 나무와 어울려 노는 대신 돈과 집, 배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때마다 나무는 사과를 따다가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했고,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으라고 했고,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다. 소년은 나무의 말대로 사과를 따다가 팔아 돈을 마련하고,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짓고, 나무줄기를 송두리째 베어 배를 만들어 타고 먼 나라로 떠났다. 그런데도 나무는 소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다 늙어서 돌아온 소년이 지친 몸을 쉴 곳을 원하자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미안해하던 나무는 그나마 남아있는 밑동을 기꺼이 내어주며 말했다. “앞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지. 이리 와서 앉으렴. 여기 앉아서 편하게 쉬어.”

마음이 아픈 건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구절이고 더 슬픈 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라는 마지막 구절이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의 어머니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희생은 아름답고 숭고하다. 그래서 이 시와 이 동화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지만 나이 탓인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어머니의 삶은, 그런 나무의 삶은 정말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어머니를 둔 자식은, 그런 나



무를 둔 소년은 진정 어머니의 눈물을,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의
헌신을 오롯이 이해하고 감사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최고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부모님의 무조건적 사랑도, 소
년을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던 나무의 희생과 헌
신도 이제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결핍과 좌절도 약이 되므
로. 감사도 배워야 할 필수 덕목이므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늘처럼 공경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큰 스승 섬기듯 공경하고 예배하라.”라는 『잡보장경』 말씀에다
가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보람이 없다.”라는 『범구경』
의 말씀을 이어 붙여 본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백 마디의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다정
한 손길이고 따뜻한 눈빛이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당신
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



괴로움 속으로 뛰어 들 때 답은 있다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묵탁소리' 지도법사

새일 뿐이다. 해안이나 습지에 서식하며, 물고기·개구리·곤충·
뱀 등을 잡아먹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새
이다. 백로가 앞 여울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가식이 아니라 자
연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백로를 순결하고 고귀한 존재로 단
정하는 것만큼이나 탐욕에 가득한 가식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
도 잘못된 것 아닐까.

이규보가 천재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란 것이 원래 그런 것
이라고 하지만, 웬지 그가 벗어난 고정관념이 새로운 고정관념
을 이끄는 듯이 보이는 것은 어째서일까.

삶은 고통이다. 사랑 때문에 괴롭고, 미움 때문에 괴롭다. 미래의
불안감에 괴롭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괴롭다.

그러나 사실 그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괴로움 그 속에 답은 있
다. ‘번뇌즉보리 煩惱即菩提’이기에 괴로움의 자리 바로 거기에 보리와
열반도 함께 있다.

보통 우리는 괴로움이 생기면 벗어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
금 여기에서 나를 찾아온 괴로움, 외로움, 불안, 미움, 번뇌를 버
리고 새로운 행복, 충만, 사랑, 평안, 고요, 용서를 찾고자 한다면
오히려 어긋난다. 그것은 둘로 나눠놓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별이기 때문이다.

둘로 나누면 그 중 하나는 선택받고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다.
둘이 서로 싸워야 한다. 번뇌가 온 이유는 ‘번뇌즉보리’를 깨닫게
해 주기 위함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 괴로움
에서 벗어나기를 포기하고, 괴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괴로움
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충분히 괴로움이 마음껏 나래를 펴고
괴로움으로 발산될 때 오히려 괴로움은 머지않아 사라져 간다.



진흙 속에서 연꽃은 핀다. 괴로움이 나를 찾아 온 이유는 괴로움으로 발산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것의 목적은 괴로움에 있는데, 내가 그 괴로움을 거부하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애쓰다면 그 괴로움을 상대로 싸우자는 것이 아닌가.

사실 괴로움은 깨달음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고 괴로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환영일 뿐이다. 괴로움이라는 가면이 힘을 발휘할 때는 사람들이 그 가면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거부할 동안뿐이다. 그 괴로움의 가면이 진짜인 줄 알고 거부하게 되면 괴로움은 진짜인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짓

누르게 된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삶의 아이러니다. 극과 극은 서로 다른 둘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인 것이다. 생사 속에 열반은 피어 있고, 중생 속에 부처는 있다. 색즉시공이며 공즉시색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세상에 따로 따로 나뉘어진 것은 어디에도 없다. 행복과 불행은 둘이 아닌 한 몸이다.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극단의 둘이 아니다. 그 둘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 극단적으로 미워하거나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지지 말라. 어느 한 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겨 그것만을 선택하려 하지 말라. 선택과 분별과 차별 속에 지혜는 없다. 이것 속에 저것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다. 삶은 이토록 아름답고도 장엄한 반전이다.

갈림길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공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지구 위에서 가장 진화된 생명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터이다. 하느님도 동의한다.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을 따서 사람을 만들었노라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도 흔히 쓰인다. X같은 인간, X X만도 못한 인간. 인류사에는 핏빛 선명한 악인들의 행적이 있다. 로마를 불태우고 시를 썼다는 네로 황제는 애교스러울 정도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지 않은가.

그러나 인류사에는 또한 성인들의 행적도 있다. 예수,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 등등 인류의 스승들만이 아니다. 삶터의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름 없는 천사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사람이 꼭 부러지게 선인^{善人}이거나, 성인^{聖人}으로 태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변화할 수 있는 가능



성이야말로 사람을 다른 동물과 확연하게 차별화한다. 개는 아무리 훌륭해야 조금 영리한 개고, 아무리 고약해야 사나운 개다. 그러나 사람은 추락하면 끝이 보이지 않도록 추악해지고 성장하면 부처를 드러내고 신성^{神性}을 내보인다. 개는 개로 태어나 개로 끝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 악마로 끝날 수도 있고, 성인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너나없이 미숙하다. 그러면 우리 보통사람들은 어떤 지

작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삶

탁상달

시인, 문학평론가
전 동해중학교 교장

점에서 추락과 성장의 길로 갈라지게 되는 걸까. 그곳은 어떤 깨어남, 어떤 눈뜸의 지점이 아닐까 한다. 그 갈림길은 습관적인 삶에서 의도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즉 실체사고에서 벗어나 연기적 관점으로 들어서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나에게 우연히 흘러들어온 습관적인 관점을 아무런 반성 없이 추종하는 삶에서 번쩍 깨어나 이 '나'가 스스로가 그렇다고 믿어왔던 진정 그러한 '나 아무개'인지 돌아보는 지점. 그리고 이 '아무개'를 위해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탐진치(貪瞋癡)라는 무한 관성이 정말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진정성 있게 따져보게 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갈림길의 지점이다. 스승에게 그 방향을 확고히 안내받는다. 그리고 그 길을 줄곧 걷는 것은 오로지 나의 일이다.

몇 해 전 노트르담 성당의 화재를 전 세계가 안타까워했다. 그 이유는 그 성당이 유명한 관광명소이기 때문은 결코 아닐 것이다. 성당은 인간 영혼의 고향을 위해 지어진 성소(聖所)다. 인간이 형상뿐 아니라 그 혼까지 그분처럼 고귀한 경지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장소다. 우리의 영혼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탐진치로 마구 불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본다. 지금 네 머리칼에 불이 붙었다고 외치는 《수심결(修心訣)》의 말씀에 가슴이 쿵! 하고 크게 울린다.

홍자성(洪自誠)의 채근담(菜根譚)에 '성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이룰 수 없다(性燥心粗者一事無成)'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태워 버리고, 은덕(恩德)이 부족한 사람은 싸늘한 얼음과 같아서 만나는 것마다 사(死)해 버리며, 딱 막힌 고집스러운 사람은 고인 물과 같아서 이는 마치 썩은 나무와 동급이니, 생생한 기운이 이미 끊겨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모두 공적을 세우고 복을 누리기가 어렵다.' 라는 말이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이 주는 의미는 허둥대는 사람, 경박한 사람 등을 꼬집어 빗대어서 정확하게 처신하라는 교훈의 말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하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라고 하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하면 '미쳤어, 비행기 타고 가야지.' 라고 내뱉는 풍토가 되고 말았다.



자연의 법칙에는 '빨리 빨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오직 영겁의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빨리 빨리'라는 단어로 소를 몰아가듯 다그치고 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 할 식사에서도 '빨리 빨리', 줄을 서서 타야 할 버스 간에서도 '빨리 빨리', 소심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행정에서도 '빨리 빨리'가

판을 쳐 심지어는 급행료라는 유행어까지 생겼으니 한심할 노릇이다.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행동으로 옮겨 놓게 하는 수단인데, 말끝마다 '빨리 빨리' 뿐이니 이렇게 서둘러 이루어 놓은 결과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아니겠는가?

실 새 없이 밀어닥치는 일 앞에서도 시간을 내어 여가 활용을 잘함으로써 피로, 권태, 긴장 등을 해소하여야만 기력과 의욕을 회복할 수 있다. 여유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 보는 여유를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고를 가지도록 하자.

살아온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자. 우리는 찰나의 순간일망정 놓치고 싶지 않은 바쁜 일상의 연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쯤은 지나간 어제를 생각하고, 다가올 내일을 향해 달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자. 우리 모두가 내일의 알차고 내실있는 결실과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해서도 말이다. 오늘 하루도 여유를 가지고 일신(日新)하는 자세로 살자.

뉴타입으로 '새로고침'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종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 <순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심상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새로움의 추구이다. 일본 최고의 전략 컨설턴트 야마구치 슈는 일찍이 뉴타입(new type)의 개념을 주장했다. 인간 관계에 의존해 미래를 예측하는 올드타입이 아니라 뉴타입으로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뉴타입은 문제를 발견하여 미래를 구상하고, 자신의 철학을 세워서 기존의 지식과 교양을 '새로고침'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였다.

현대인의 새로고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디어이다. 미디어는 인간의 전달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공유, 개방, 참여, 소통 등이 활발해지면서 방송에 연예인이 아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여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면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창의적 소비자가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1년동안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2007년부터 문화예술정책과 방송 즉 미디어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데, 3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 일을

한 덕분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경험적 능력을 갖게 되었다. 방송 일을 접게 된 것은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인데 대통령실 업무가 낯선 일이라서 걱정이 되었지만 막상 접해보니 생방송처럼 공공성을 갖고 순발력있게 대처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때 느낀 것은 방송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었다. 나에게 방송 31년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었던 것이다.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사회문제는 계속 발생한다. 사회문제는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응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 학자 찰스 다윈은 '결국에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다. 지능이 뛰어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하였듯이 앞으로 인류의 미덕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 '새로고침'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진화 코드는 초연결이다. 같은 것끼리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끼리도 연결을 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뇌에 비유한다. 인간의 뇌는 1천억 뉴런(신경세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신경세포가 다시 다른 뉴런과 연결되면서



100조가 넘는 시냅스(신경망)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더 큰 능력은 혼자가 아닌 팀으로 활동을 할 때 나타난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뉴런이 모여서 천문학적인 시냅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막닥들인 기후 위기라는 커다란 재난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힘을 모아도 힘들 형국인데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갈등으로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얼른 자기 자신을 뉴타입으로 '새로고침'하여 인류는 서로 연결하면서 협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긍정적인 연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처님의 인연법은 바로 오늘날의 진화 코드인 초연결이다.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새해는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어서 개인의 이익 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 일들이 이루어져서 산다는 것이 즐거운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2차 한국불교수행자 중국불교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행사는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고, 각 종단 참가자 23명이 인천공항에 20일 오전 6시까지 집결해 행사 장소인 중국 광둥성 하원시에 있는 연암 육조고사로 출발하는 일정이라 전날밤 영천 단음사를 출발하여 경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밤 11시 50분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장시간의 이동을 끝내고 20일 오후 4시경 연암 육조고사에 도착하게 되었다. 육조고사는 육조 혜능스님께서 은둔하며 수행했던 곳으로 전해지며, 이곳 주민들이 육조스님이 수행하시던 곳이라 하여 육조고사로 이름하였다고 한다. 첫날은 육조고사 참배와 환영 인사로 마무리가 되었다.

둘째날 새벽예불로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예불은 1시간 정도 서서 진행되었으며 가끔씩 절을 하였다. 집공자의 선창과 동발의 울림에 맞춰 경전을 독송하는 방식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단지 언어적 차이와 목탁과 동발

법구의 차이 정도, 함께 참가했던 타종단 스님들은 예불의 차이 점이 서서하는 것과 앉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데 서서하는지 앉아서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후 시간에는 중국 참선수행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반나절의 일정으로 진행된 참선수행에 대한 설명과 실참으로 중국불교의 수행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나, 참선수행에 대한 설명에서 받은 느낌은 사띠와 사마띠의 중간형태로 간화선보다는 위빠사나 수행(사념처 수행)에 가까웠으며 수행의 준비사항은 위빠사나 수행과 거의 동일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며, 실천하는데 있어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펼쳐보이신 많은 수행 가르침 중에서 자신의 성품과 근기에 맞는 수행법으로 시작하여 수행의 근기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수행일정중 광둥성의 여러 사찰을 방문하였는데 그중 남화선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남화선사는 육조 혜능스님이 30년간 법을 펼친 사찰로 옛 이름은 보림사이다. 남화선사의 입구에는 ‘조계曹溪’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조씨가 많이 살던 마을 앞 개울이란 뜻으로 남화선사 뒤편 산 이름도 조계산이다. 그리고



는 남화선사의 정문인 조계문을 통과하여 남화선사의 조전에 도착하였다. 조전에는 좌선한 채 열반한 모습 그대로 보존된 혜능스님의 진신상인 등신불이 봉안돼 있다. 진신상은 보존을 위한 옷칠 때문에 얼굴이 새까만 점을 제외하고는 1천300년 동안 변치않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경외심이 들었다.

이번 수행체험에서 2008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진행한 종단 실무자 대만불교체험 프로그램에 같이 참가했던 조계종 실무 담당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당시 대만불교체험에 큰 감명을 받아 대만 불광산사에 5년간 유학을 다녀왔다고 한다.

인연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타종단 여러 스님들을 만나보니 우리 총지종이 참 좋은 종단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한국의 대표종단 조계종이 이곳 이름에서 비롯되었으니 남화선사는 조계종의 시원^{始原}이라고 할 수 있다.

남화선사에 도착하여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패방을 지나 큰 글씨로 조계라고 써 놓은 편액이 걸려있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사)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임고문
 80여 편의 논문 발표, 20여 권의 저·역서 발간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연구> 등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한국연구재단 10년 대표 연구 성과 선정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현장스님(602~664년)의 구법기를 소재로 명나라의 오승은(1500~1582년)이 저술한 소설 <서유기>의 한 장면에서 유래한 속담이다.

바위 속에서 태어난 망나니 같은 손오공이 세상을 뒤흔들고 천상 세계까지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자 부처님께서 나타나 손오공을 제압하신다. 부처님께서 손오공에게 당신의 손바닥을 벗어나 보라고 말씀하시자, 손오공은 근두운(筋斗雲)을 타고서 하늘 끝으로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다섯 기둥에 자신이 왔다간다는 글을 쓰고 돌아온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손바닥을 펴 보이시는데, 그 글을 적은 곳이 바로 부처님의 손가락이었다. 그야말로 “(손오공이 날고)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이었다.”

<서유기>의 저자 오승은은 부처님의 명호로 ‘석가여래’를 택했다. 그러나 손오공을 교화하신 부처님이 ‘비로자나불’이었다면 더 어울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경>의 부처님이시다.



비로자나는 범어 바이로짜나(Vairocana)의 음사어로, 광명변조(光明遍照)라고 풀이한다. 그 분의 광명이 우주에 가득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그 분의 몸이 우주에 가득하다. 우주 전체가 그 분의 몸이다. 화엄 신화(Myth)에 의하면 <화엄경> ‘비로자나품’에 등장하는 대위광태자가 이룩한 무한 정진의 보살행의 공덕으로 건립된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다.

유식학^{唯識學}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께서서는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의 세 가지 몸을 갖추고 계신다. 법신은 부처님께서 체득하신 우주 가득한 진리, 보신은 역겁의 보살행의 공덕이 쌓인 부처님의 마음, 화신은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여 32상 80종호를 갖추신 부처님의 몸이 해당한다. <화엄경>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가운데 우주 가득한 진리인 법신 부처님이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에 대비시키면 법신은 하느님(또는 하나님)인 성부^{聖父}, 보신은 성신^{聖神} 또는 성령^{聖靈}, 화신은 성자^{聖子}인 예수에 대응된다. 탄허스님의 가르침이다. 이 가운데 성부인 하느님(나)님에 해당하는 분이 <화엄경>의 주불 비로자나부처님이시다. 뛰어보아도, 굴러보아도, 달려보아도, 날아보아도 모두 비로자나 부처님 품속이다. 살아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품속이고 죽어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품속이다.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삼아서, 필자가 지은 줄시^{拙詩} 시집, <억울한 누명>에서 ‘비로자나 여래’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로자나 여래

항상 계신 분
태양처럼 밝고 어디든 비추기에
대일^{大日}여래라 한다.

대낮
이마 위 공중에서
언제나 쏟아지는 그 따스함
처럼 ...

그러나
직시하면 눈이 멀까 봐
감히 바라보지 못했던 분

화엄경의 대위광태자께서
역겁의 보살도로 쌓아놓은 공덕들을
한목에 펼쳐서 세계를 지으려다
꼬물거리는 생명들
차마 방치할 수 없어서
그 몸 그대로 온 중생을 품으신 분

태양보다 밝기에 대일여래라 하고
비추지 않는 곳 없기에
광명변조라 한다.

모으면 한 점이고 펼치면 허공 가득.
어디든 중심이고 누구나 주인공.
바로 그분의 마음
소리 없는 빛이기에
대적광이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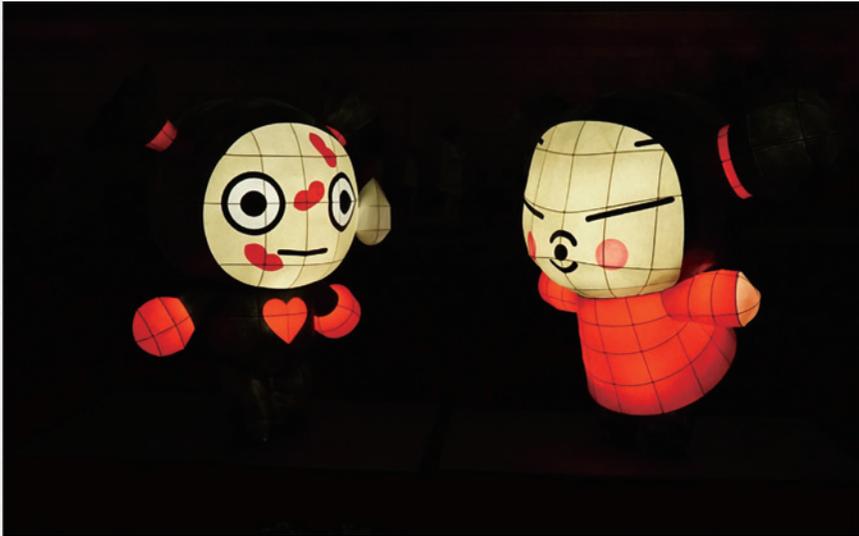
지난해 말 영면에 드신 故김성철 교수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속담으로 보는 불교’는 이번호로 끝을 맺습니다.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부까와 가루



개구리 왕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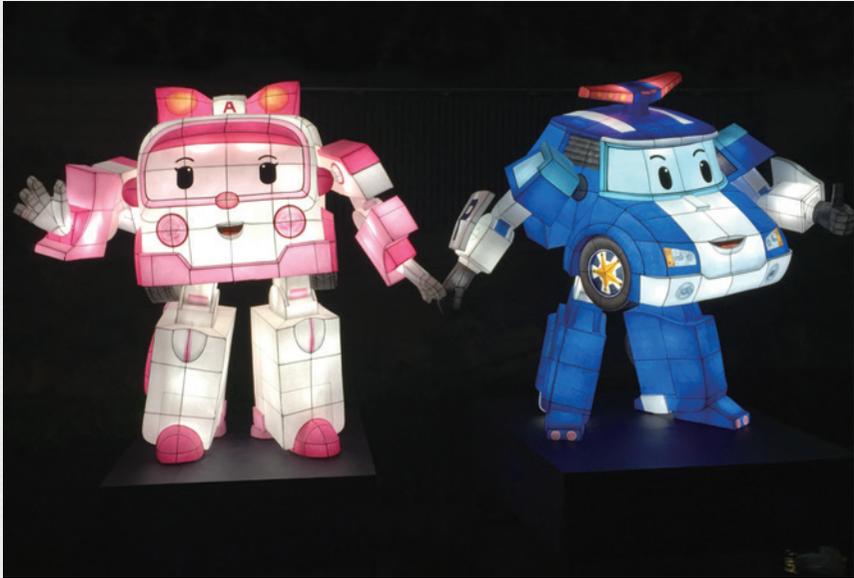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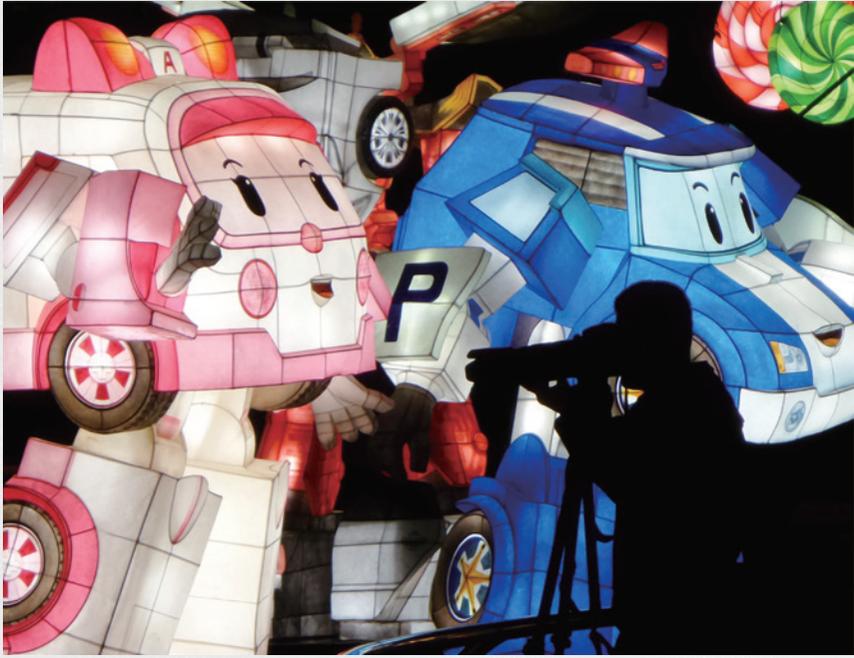
PART 2.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 I. 뽀로로와 친구들
- II. 어린왕자
- III. 토닥토닥 꼬모
- IV. 아기공룡 둘리

- V. 부까와 가루
- VI. 개구리 왕눈이
- VII. 로보카 폴리
- VIII. 로봇 태권V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Animation and Characters)

애니메이션은 흔히 만화영화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식의 영화다. 예전에는 어린이 대상의 오락물로 생각해 하위문화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달과 부가산업의 확대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세련되고 깜찍해서 어린이 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로보카 폴리



로봇 태권V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강남구에 60여 곳 이상 자리 잡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연합



1. 두발 모아 앞으로 뛰기를 두려워하는 아이

아이에게 두발을 모아서 앞으로 뛰어 보라고 제시한다. 아이는 주춤하며 뛰지 못한다.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점프를 외치며 부드럽게 당겨 주자 점프를 시도해 보지만 두발이 아닌 한발씩 교차로 착지한다. 두발을 모아 앞으로 뛰는 것이 두려워 넘어진다.

원인

- 1) 신체 구조상 아이의 머리가 크거나 발의 크기가 작아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
- 2)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발을 모아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습득하지 못하여 두발 모아 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3) 한쪽 다리에 더 많은 힘이 가해져 앞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 4) 생활을 하며 다리에 가해지는 힘이 달라 한쪽다리에만 힘을 주고 뛰게 되는 경우
- 5) 두발 모아 점프를 하다가 넘어진 경험이 있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 다시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

지도방법

- 1) 균형 감각을 발달시키고, 두 다리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우리 한발로 서서 누가 오래 버티나 게임해 볼까? 하나, 둘, 셋~”

2) 또래 친구 또는 부모가 두발 모아 뛰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가 관심 갖도록 한다.

“이것 봐! 짱! 총! 엄마 점프 정말 잘하지? 우리 ○○이도 같이 점프 해 볼까?”

3) 아이들마다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아이를 재촉 하지 않고 기다려준다.

- 제자리에서 뛰기, 한발로 뛰기, 앞으로 한발 뛰기, 번갈아 뛰기 등을 경험해 본 뒤 점차 두발 뛰기를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우와! 우리 ○○이 점프 잘하는데? 점프놀이 정말 재미있다. 신난다~”

4) 아이가 뛰기를 하였을 때 칭찬을 해주어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유니바 넘기, 징거마달 건너기, 훌라후프 건너기 등 신체활동 도구를 이용한 뛰기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총지종의 불사의귀는 먼저 참회서원과 오대서원을 한 후 진언염송에 들어가기 전에 “람”자 관^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람’자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자세는 금강좌(결가부좌)로 앉고 수인^{手印}은 대삼매인(선정인)으로 두 손을 합장하듯 펴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놓고 두 엄지손가락을 마주 대고 배꼽아래의 단전에 갖다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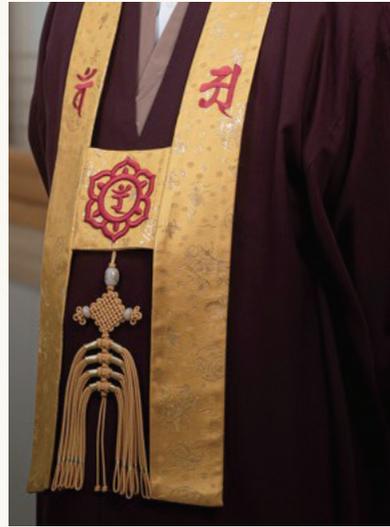
이 수인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통하여 세상의 진리를 얻었을 때 가졌던 모습입니다.

‘람’자는 밀교의 수행법의 하나로서 삼밀수행^{三密修行}을 기본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삼밀수행이란 행자 자신의 몸과 입과 뜻의 세 가지 삼업^{三業}으로 부처님과 일체를 이루는 수행법입니다.

즉, 몸으로 부처님과 같은 수인을 결하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말씀인 진언^{眞言}을 외우고, 뜻으로는 부처님의 모습이나 말씀을 관^觀하여서 즉신성불을 이루고자 하는 밀교 수행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람’자 관은 자신이 부처인 것처럼 위의 신밀, 구밀, 의밀을 통하여 진언염송 하기 전의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총지사 불단의 '람'자



금가사의 '람'자

'람'자 관은 번뇌 망상을 없애고 삼매에 들게 합니다. 관(觀)이란 글자를 머릿속으로 그리거나 새기는 것이 아니고 글자를 그대로 떠올리는 것이다.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람'자를 관하는 순서는 첫째 '람'자가 내 정수리에 있다. 둘째 이 '람'자가 밝은 보름달 위에 떠 있고 밝은 빛을 낸다. 셋째 '람'자를 통해 내 몸과 마음을 청정케 한다.

'람'자관을 하는 동안 나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일체의 번뇌망상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태워 없앤다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람'자 관은 공식법회에서는 1분가량 관(觀)을 하며 대개 집공자가 종을 칠 때까지 관을 합니다. 개인염송 때는 산란한 마음이 안정되고 호흡이 가다듬어질 때까지 합니다.

지난 호 정답

①㉓	창	교	절		②	수	미	상	④	관		⑤	가	
호			임				지		③	포	석		정	
지			④	배	산	⑥	임	수		지			주	
	⑤㉓	후	추			기			⑥㉓	불	교	⑦	학	부
⑦	소	회		⑧	감	응	신	호				점		
		막				변		령				은		
⑨㉓	허	심	④	탄	회							행		
물			산			⑥	돈		⑩㉓	중	생	제	⑤	도
불			소			⑪	오	대	양					매
⑫	공	사	다	망					⑬	절	세	미	인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	㉗		㉘			②㉙			㉚
					③				
			④			⑤			
⑥㉛		㉜			㉝				
					⑦		㉞		
		⑧	㉟						
⑨	㊱				⑩				
			⑪	㊲					㊳
⑫						㊴			
	⑬				⑭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① 한국 정통 밀교종단으로 자리아타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
- ② 올해는 소의 해로 00년
- ③ 손이 시려워 콩~ 겨울바람 때문에~
- ④ 생활 주변의 재미나고 우스운 일을 소재로 만든 극
- ⑤ 증거가 되는 것을 모조리 숨기거나 없애는 일
- ⑥ 바람 앞의 등불
- ⑦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 ⑧ 의견이나 주장이 엇갈려 융합되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느긋한 기분으로 한가로이 거닐
- ⑩ 보살은 팔리어 0000의 줄임말
- ⑪ 축끝에 불을 붙여 사용하는 화살
- ⑫ 산이나 담, 고개, 무지개 같이 높은 것의 저쪽
- ⑬ 무리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 ⑭ 지표 부근의 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세로 열쇠

- ㉗ 종교의 형세가 나날이 나아가는 모습
- ㉘ 지구상의 모든 국가나 지역이 한마을처럼 가까워짐
- ㉙ 지루하고 속이 답답한 증세
- ㉚ 불교의 근본 원리인 사성제를 이르는 말
- ㉛ 산산이 부서져 사방으로 날아가거나 흩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㉜ 사람의 키만 한 정도로 만든 불상
- ㉝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한다는 보살
- ㉞ 가벼운 물체나 물결 따위가 바람에 조금씩 자꾸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모양
- ㉟ 불상이나 불화에서 본존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
- ㊱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관념적인 공부나 생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㊲ 꽃이 피는 풀과 나무
- ㊳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
- ㊴ 사실대로 형상화하지 않고, 점이나 선, 면, 색채에 의한 표현을 목표로 한 그림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안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심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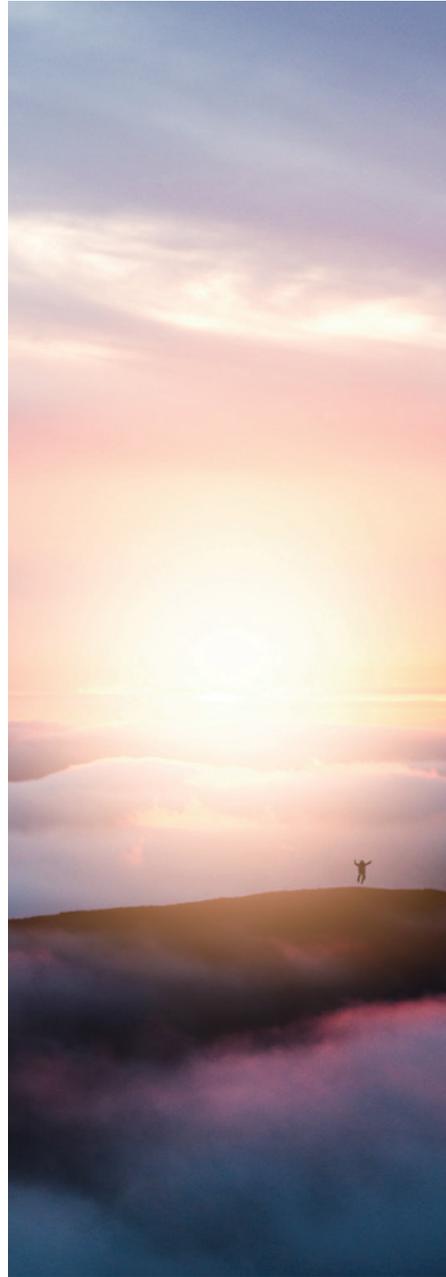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우 인
이수영 이재길 자선화 한철수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장윤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승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제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송나라 시대의 철학자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조롱의 정원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마침 날아와 앉아 있는 큰 새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장자는 새를 향해 활 시위를 당겼지만,
이상하게도 새는 전혀 꿈쩍을 안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큰 새는 제비를 노리고 있었고,
제비는 또 제비대로 나무 그들의 매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매미 역시 제비가 자신을 노리는 줄 모르고
즐겁게 울어댔습니다.
결국 큰 새, 제비, 매미 모두
당장 눈앞의 이익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아져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세상의 이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하고
깨달았는데
'견리망의(見利忘義)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는다는 뜻입니다.
매년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는데,
지난해 '견리망의'가 뽑혔습니다.

'견리망의'와 달리 논어의 현문 편에는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보면 먼저 의리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갑진년 새해는 모두가 건강하시고,
'견리사의' 넘치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1월호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탐하는 까닭에 급해지고,
성내는 까닭에 급해지고, 어리석은 까닭에 급해진다.

- 환당 대중사 법어록 중에서 -